

# ‘우크라이나-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조선대, 우크라이나 인문학 특강 연다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30일부터 매주 온·오프라인 진행

우크라이나 출신 교수·연구원 참여

조선대학교가 우크라이나 출신 학자들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인문학 특강을 시도하는 강좌를 갖는다.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이 제19회 재난인문학 강좌 ‘우크라이나-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개최한다.

오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조선대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 세미나실(분관 4145호실)에서 온라인(ZOOM)과 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상황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 역사 속 영클러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형제의 관계, 예술과 문학 속에 피어난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정신, 교과서 속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역사와 정보의 왜곡, 진실 공방 등 현재 사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강좌에는 우크라이나 출신 교수와 연구원이 참여해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좌는 오는 30일 한국외대 홍석우 교수의 ‘우크라이나인들의 결사 항전, 그 힘의 근원은?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사 문화 해석’ 강연을 비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국제 시민단체인 아바즈(Avaaz) 회원들이 지난 23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건물 앞 광장에 촛불과 전등을 이용해 평화를 의미하는 거대한 상징물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롯해 4월 6일 세계지역연구센터 박정호 신북방경제실장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관계: 주요 이슈와 시사점’ 강의를 진행한다.

이어 4월 13일 우크라이나 출신 서울대 알리나 쉬만스카 연구원의 ‘교과서의 전쟁 그리고 정체성의 전쟁’, 4월 20일 한국외대 카테리나 탄친 우크라이나 외국인 교수의 ‘우크라이나 예술과 문학에 피어난 저항정신’ 강의를 펼친다.

강희숙 사업단장은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며 나라를 잃은 비참한 심정을 처절하게 느껴왔기에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게 느껴진다”라며 “일제강점기 당시 조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이상화의 시처럼 이를 주제

로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다가가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은 2019년 5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HK+ 사업 1유형 인문기초학문 분야에 선정돼 7년 동안 약 7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인문학 심층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재난인문학연구사업단에서는 학술세미나와 공동연구회(클러스터), 포럼, 초청 특강, 국내-국제학술대회 등 아젠다와 관련한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인문학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설치한 지역인문학센터에서는 ‘재난인문학 강좌’와 ‘HK+ 인문학 강좌’를 다채롭게 기획, 운영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대 ‘평생교육, 꽃을 피우다’ 전시

평생교육원 수강생 100여 명 수채화·사진 등 6개 분야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2022년 평생교육원 문화예술전시회’를 개최한다.

‘평생교육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광주대 극기관 1층 호심미술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회는 총 6개 강좌에 참여한 100여 명의 수강생의 200여 개 작품이 전시된다.

먼저 수채화 일러스트(꽃 그림)전이 내달 4일까지 열린다. 이어 ‘수목의 향기’를 주제로 한국화(4월5일-11일), ‘중첩 표현은 자유다’ 사진이카

데미(4월12일-18일), ‘서(書)와 시(詩)’ 서예(4월19일-25일), ‘그림 속 행복’ 서양화(4월26일-5월2일), ‘사진, 디지털과 만나다’ 디지털사진과 포토샵(5월3일-10일) 작품 전시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작품 전시는 평생교육 배움 문화 확산을 통해 수강생들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 창의적 결과물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평생교육 발전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콘텐츠와 대중문화·홈 카페와 여가생활 등

동강대, ‘DU 융합 교양’ 과정 개설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융복합 시대에 학생들을 위한 교양인으로서 커리어 글로벌 인재로서 역량을 높인다.

동강대는 최근 보건관 2층 율곡홀에서 ‘DU 융합 교양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DU 융합 교양’은 동강대 학생들이 성숙한 인격체로서 다채로운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설된 교과목으로 담당 교수 3명이 ‘팀 티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콘텐츠와 대중문화의 이해(유동국 교수)’는 현장 사례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되며 ‘홈 카페와

여가생활(김관용 교수)’은 동강대 인문사회관 2층에 위치한 바리스타센터에서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본다. 또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노은경 교수)’은 CS(고객만족)센터에서 고객 응대 및 서비스 등에 대해 배운다.

교양교육지원센터 김선미 센터장은 “전면역량을 갖춘 교수진과 여러 학과의 참여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가 기대된다”며 “교양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교양기초교육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동신대 사회복지학과-전남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협약



동신대 사회복지학과(학과장 조지현)는 최근 전남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강희숙)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노인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청년활동가 프로젝트 ‘청춘노보’ 사업의 주축인 청년 자원봉사 활성화에 나선다. <동신대 제공>

## 자기소개서 폐지 ‘학생부’ 중요성 높아졌다

2024학년도 대입 전면 폐지

수도권 대학 올해는 유지

관심 대학 반영 여부 체크해야

2024학년도 입시부터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2023학년도) 상당수의 대학이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기로 한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험생들은 관심 대학의 자기소개서 폐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대입에서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되는 것은 2024학년

도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일찌감치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기로 한 대학들이 늘었다.

전년도인 2022학년도에 이미 고려대, 단국대, 상명대, 서강대, 한국외대 등이 자기소개서를 폐지했다. 올해는 서울과학기술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인하대, 홍익대 등이 추가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거점국립대학에서는 지난해 일반전형 기준으로 유일하게 충북대 학생부종합 II전형에서만 자기소개서를 활용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교육대는 모든 대학에서 자소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초등교육과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대, 한국교원대가 2022학년도에 자기소개서를 폐지했고, 유일하게 남아 있던 이화여대가 올해부터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으면서 모든 초등교육과 입시에서 자기소개서가 활용되지 않는다.

◇자소서 폐지·학생부 중요성↑=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 방침에도 수도권 대학들 중에는 여전히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이 올해에도 자기소개서를 요구한다.

명지대, 서울여대, 강남대는 전형에 따라 자기소개서 활용 여부가 달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기소개서는 작성하는데 시간적인 소모가 크고, 학생부와 달리 작성의 주체가 수험생 본인이라는 점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자기소개서 폐지가 반가운 이유이다.

하지만 자기소개서가 폐지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미처 드러내지 못한 본인의 상황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보충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 평가서류가 줄어든 만큼, 학생부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